

상록탑

비겁한 학교, 허탈한 우리



김소연
편집부국장

이번 주는 정말이지 바빴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면서 몰아치는 리포트 과제, 과목마다 있는 팀 프로젝트 사전조사와 회의, 심지어 전공과목 2차 시험까지 있어 할 일이 너무 많아 도저히 잘 시간이 없었다.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시간은 없어 잠을 줄여야 했기에 커피와 핫식스를 달고 살아 이번 주는 카페인에 그야말로 '절어' 있었다. 목요일에 학보 마감을 하면서 또 세 시간을 겨우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나라를 뒤쫓고 있는 비선 실세의 딸 정유라에 대한 본교의 특혜 의혹이 전부 사실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허탈했다. 입시 과정도 모자라 학사까지, 내가 아등바등 다니는 학교가 일개 학생에게 찢찢하며 뒤를 바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느낀 가장 큰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정씨는 입학하고 올해 여름까지 8개 과목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출석 대체 자료도 내지 않았는데도 출석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과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그대로 복사한 정씨의 리포트에 교수들은 '관대하게' 점수를 줬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어떤 과목에서 보고서를 내지 않자 교수가 직접 정씨가 제출한 것처럼 꾸며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리포트를 쓰기 위해 논문도 보고, 뉴스 기사도 읽고, 정리하고, 팀원과 피드백을 하느라 새벽까지 밤을 지새웠는데, 정씨는 교수가 직접 리포트를 제출해 점수

“**확실한 문제 해결로 허탈감에서 벗어나게 해야**”

를 받았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가장 허탈했던 점은 정씨가 입학취소가 돼 앞으로의 인생에 별 타격 없이 지금과 같은 호의호식하는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특혜만 누리고 살아온 정씨가 앞으로 나를 열심히 살아온 나보다 더 잘 살 것 같아 엄청난 허무함과 허탈함이 나를 짓눌렀다.

이화에서의 내 7학기가 헛되게 느껴졌다. 출석을 안 해도 출석 인정이 되고,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출한 것이 되고, 기말고사를 보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기이한 대학생활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화의 많은 학생들은 9시20분 이대역에서 2교시 수업을 지각하지

않으려고 전속력으로 달린다. 이화의 많은 학생들은 리포트 제출을 위해 여러 논문을 찾아가며 밤을 지새운다. 이화의 많은 학생들은 시험기간에 밤늦은 시간까지 열람실 자리를 지킨다. 한 학생 때문에 이런 우리 이화인의 노력이 부정당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한 학생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워 마지않았던 이화의 이름에 비리 대학이라는 오명이 생겼다.

하지만 학교의 대응도 미지근하다.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고 본교가 학내 구성원들에게 전한 말은 '입시 및 학사운영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뿐이었다. 이화브리핑을 통해 "어떠한 특혜도 제공한 바가 없다"고 단언했던 본교의 태도 역시 모두 거짓이었고, 학사의 부실한 미비점이 문제가 아니라 '비리'가 문제였는데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씨가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이 마무리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정씨가 자퇴서를 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도 걱정 없이 마음대로 자퇴하고 싶다"고 말하고, 입학취소 기사를 접하고 "저래도 나보다 잘 살겠지"라고 말하는 세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과 상실감에 빠져 있다. 현 사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확실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런 허탈감에서 벗어나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칼럼

노래를 안 불렀다고 할 수는 없다



박선
영문-14

“**우리의 인생은 현재진행형**”

뺨칠 때 매달려 우울 안으로 숨는다. 밖에는 나를 쫓아온 사람들이 두리번거린다. 우울 바닥에는 거대한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있다.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 하는 상황에서 흰 쥐와 검은 쥐가 밧줄을 잡아먹고 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튼튼했던 동아줄이 점차 흔들린다. 희망을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움켜잡으니 희망은 안개처럼 빠져나간다. 찰나의 좌절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혼자 되뇌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최면에 빠진다. 한 순간 눈을 번쩍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좌절을 온 몸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타들은 자신의 그럴듯한 실패를 자랑삼아서 말하곤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 사례를 귀담아듣는다. 그들은 이어서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한다. 누구는 슈퍼카를 여러 대 소유하고, 누구는 청담동에 건물을 두 채나 보유했다. 실패는 성공 후에 빛나는 법이다. 실패 후에 실패만 기다리는 인생은 손가락질 당하기 마련이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싶을 때가 있다. 모두가 직진할 때 나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는 것만 같다. 스스로

를 돌리는 햄스터와 다를 바가 없다.

영화 <플로렌스>에서 소프라노인 플로렌스는 지독히도 노래를 못 부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노래를 잘 부른다고 알고 있었다. 대중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마침내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큰 충격을 받고 앓고 있던 병이 악화되면서 그는 죽어간다. 그때 그가 말한다. "사람들이 내가 노래를 못 불렀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노래를 안 불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걸요." 그의 가짜 인생 역시 그가 선택한 결과였다.

시중에는 수많은 위로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른 이의 이야기이다. 이 글은 그들의 이야기처럼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는 않다. 실패만을 해본 내가 성공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기 때문이다. 단지 실제로 카네기 홀에서 노래를 불렀던 플로렌스처럼, 가짜가 진짜가 되는 가치를 스스로 조망해 볼 것을 권하는 바이다.

추신으로 친구는 후에 이직을 했다. 그곳은 월급은 적지만 햄스터와 수다를 떨 수 있을 만큼 많은 개인시간이 보장되는 곳이다. 그는 두 번째 선택에 만족한다.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의 선택은 진행 중이고, 그 모든 결정 역시 가짜가 아닌 그의 인생이다. 노래를 못 하지만 안 불렀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론광장

어둠을 이기기 위해 밝히는 불빛

이만큼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한 적이 없었다. 나 하나쯤이야 관심 없어도 된다는 철없는 생각으로 그 혼탁을 외면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착잡했다. 목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더 무너질 마음이 있나 싶을 정도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긴급 현안질문에서 나온 한 발언을 빌리자면, 우리는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국가를 말도록 우리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때로는 힐난조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눈 감고 귀 막은 태도로 시크릿 가든

이나 따라하며 끝을 모르고 나라를 막 다루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한숨과 허탈한 웃음만이 나올 뿐이다. 제 무능함을 이보다 더 신박하고 우습게 자랑할 수 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무능했나? 2012년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처럼 마음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중이다. 부당에 대한 우리들의 저항은 매우 이성적이고 평화적이다. 우리의 목소리는 목인이라는 폭력을 당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 폭력을 이겨낼 것이다. 빛은 어둠을 이긴다. 국민의 빛은 비리의 어둠을 이긴다.

같은 장소에 같은 뜻으로 모여 어두운 밤을 밝히는 수많은 불빛이 만들어졌다. 광화문을 가득 채운 불빛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세한도(歲寒圖)>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 "폭설에 덮인 한겨울을 견디는 모든 것들은 / 견디며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겹게 아름답다."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추위 속에서 우리는 투쟁한다. 우리 앞에 있는 부당과 비리를 향해 투쟁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히 봄이 있을 것이다.

김려정(방송영상-14)

사설

명확한 해명 통해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및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가 18일 나왔다. 본교는 약 두 달 간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의혹들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거짓말이 전 국민 앞에 낱알이 밝혀진 셈이다.

감사 결과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면접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정씨를 뽑기 위해 정씨보다 서류단계 성적이 높았던 다른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낮췄다. 학사과정에서도 정씨가 기말과제를 제출하지 않자 교수가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를 첨부하거나 정씨가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았음에도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과 온라인 대리 수강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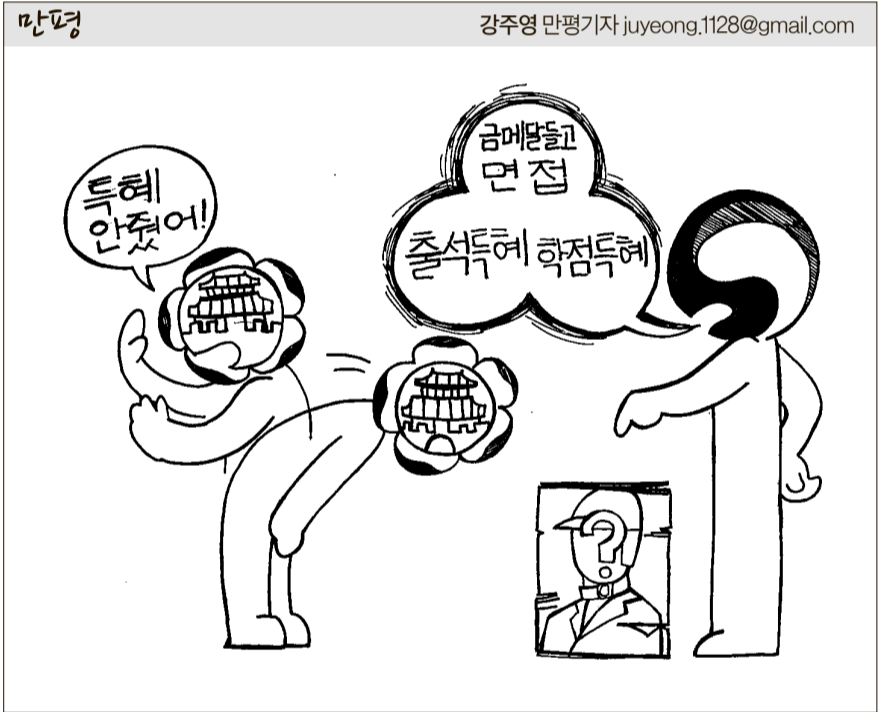
이는 이화 130년 역사를 수척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입학의 공정성은 대학 신뢰도와 평판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더군다나 거의 모든 학생이 대입을 위해 초·중·고 12년간 힘겨운 학업생활을 견디는 우리나라에서 입시부정은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일이다. 정 씨보다 서류점수가 높았던 2명은 면접과정에서 점수 조정으로 탈락했고, 현재로서는 구제방법도 없다고 한다. 이화인이 될 수 있었던 누군가의 억울함은 누가 해결해줄 것인가. 또 이런

충격적인 소식에 바로 지난주 수능을 치른 전국의 수험생들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는가. 당장 본교 2017년도 입시에 이번 결과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걱정된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그동안의 학교 측 태도다. 여러 차례 설명회에서도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시 없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던 일부 교수들의 설명은 낮부끄러운 거짓해명으로 밝혀졌다. 학사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였다.

물론 아직 특혜 배경에 관해선 더 밝혀져야 할 것이 많다.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본교에선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등이 남은 의문점이다. 그러나 만약 외압이 있었던 것이라 해도 이화는 받아들여야 안 됐다. 권력에 놀리거나, 혹은 부당한 권력을 쫓으면 안 되었다. 우리가 이화에서 배운 건 그런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일련의 모든 정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일에 연관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본교의 대내외 신뢰도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이화를 믿는다.



금주의 책



팩트체크 : 세상을 바로 읽는 진실의 힘

- JTBC 뉴스 팩트체크 제작팀 지음, 서울: 중앙books, 2015.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엄청난 정보의 양 만큼이나 거짓 정보나 필요 없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진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책의 제목인 '팩트체크(Fact Check)'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미국 미디어에서 정치인들의 발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사실 검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을 본떠 한 방송사 뉴스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만들었고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호응과 논란이 되었던 팩트들을 엮어 책으로 냈습니다. 책에는 이미 나온 뉴스들에 대해 사실을 기반으로 검증하는 형식을 취해 무심코 지나쳤지만 우리의 일상과 직결돼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로 읽는 진실의 힘'이라는 부제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진실을 탐구하는 이화인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금주의 책'은 "도서관 BEST 대출도서"에서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 인기도서 / 4층 일반자료실 070.43 팩848차

1019~1117 중도 대출순위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1	구르미 그린 달빛: 윤이수 장편소설	윤이수	열린원
2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Rowling, J. K.	문학수첩
3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푸어	Bauman, Zygmunt	천지인
4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5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Rowling, J. K.	문학수첩
6	아도니스: 남해인 장편소설	남해인	동아
7	신과 함께: 저승편	주호민	애니북스
8	보보경심: 동화 장편소설	동화	새파란상상: 파란미디어
9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기욤 뭈소 장편소설	Musso, Guillaume	밝은세상